

<2016년 3월 16일 새벽말씀>

때와 탄생과 휴거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은 316입니다.

<생명의 날>이며, <성자 승천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진행 중’ 입니다.

◎ 오늘은 새벽부터 선생이 직접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 시작>

- ◆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고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부의 영들을 데리고 가는
역사적인 <성자 승천>은 ‘한 번’ 으로 끝났습니다.

작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념행사’ 만 합니다.

- ◆ <휴거>... ‘성자가 떠나실 때 함께 맞았던 휴거’ 는
작년 3월 16일에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휴거의 문’ 이 열렸으니,
성자의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 <휴거>는 계속 ‘진행 중’ 입니다.

고로 ‘진행 중인 휴거 행사’ 를 올해도 또 합니다.

- ◆ <휴거>는 준비되는 대로 ‘수시로’ 됩니다.

첫째, <300선 휴거>를 이루고

둘째,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룹니다.

수시로 휴거되지만

<316>에는 ‘보다 크게’ 많은 자들을 휴거시켜 주십니다.

또한 <316>에는 ‘휴거의 차원을 높인 영들’ 에게

성자께서 차원을 높인 만큼

<그 단계의 황금성 집>을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 ◆ <생명의 날>은 선생이 살아 있으니,
해마다 맞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생일’ 을 맞고,

죽으면 ‘생일’ 이 아닌 ‘제삿날’ 을 맞습니다.

선생이 살아 있으니, 모두 ‘생일’ 을 맞아 줍니다.

- ◆ 선생은 ‘새벽’ 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말을 들어 보면,

그때는 시계가 없어서 ‘선생을 낳은 시간’ 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른 새벽>에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선생을 낳고 미역국을 먹고 나니 닭이 울었고,

조금 있으니 날이 샀다고 했습니다.

성령께 물으니 “그때가 새벽 4시경이다.” 하셨습니다.

- ◆ 선생은 ‘답띠’ 입니다.

<답>은 ‘때’ 를 알립니다.

하나님은 ‘때’ 에 맞춰 <선생>을 보내셨고,
삶 자체를 <성자의 육>으로서 ‘때’ 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 ◆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려면,
‘때’ 를 맞춰 태어나고 ‘때’ 에 맞춰 행해야 됩니다.

- ◆ 선생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 것입니다.

- ◆ 하나님 역사의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때>가 맞는지 보면 됩니다.

<때>가 안 맞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낸 자’ 가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하나님은 ‘때’ 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항상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했다는 것은
옛 시대에 미리 ‘앞날’ 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면,
〈대화〉로 ‘과거’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미래의 것〉이 ‘예언’이 되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꼭 이루십니다.

- ◆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 중심인물, 사도들을 통해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말씀하시고, 꼭 이루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중심인물, 메시아’에게
꼭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꼭 ‘때’에 맞춰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미리 알고 예비하라.**’ 함입니다.

또 그 시대에 희망을 주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 ◆ 고로 후손들은 희망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어려움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꼭 ‘보낼 자’를 보내시고 ‘새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 ◆ 모세 때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민족 형벌 기간인 한 때 두 때 반 때 400년이 끝나니,
하나님은 ‘인도자,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4000년이 끝나니,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 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40년’ 이 끝나니,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 구원할 ‘시대 구원자’ 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 ◆ 때에 따라 선생은 1945년 3월 16일 새벽에 태어났고,
그해 8월 15일에 한국은 해방됐습니다.

- ◆ 또 세계에도 평화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극적인 제2차 세계대전도 그해 5월에 종식되고,

세계 평화 기구 UN도 그해 10월에 창설됐습니다.

<UN 설립 목적>은

전쟁 방지,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국제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중심하여

세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 ‘평화 기구’ 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남북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두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UN’ 을 들어 북한을 제재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하나님은 ‘때’ 에 맞춰 행하십니다.

1945년 3월에 ‘선생’ 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 크면서 성자에게 배우고 새 역사를 펼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세가 되었을 때 <성약 섭리역사>를 시작하셨고,
1978년부터 1999년까지 21년 동안
<성약 전반기 역사>를 펴셨습니다.

- ◆ 그때 1999~2000년까지가
기성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때’ 입니다.

이때는 ‘신약역사가 끝나 가는 때’ 이기도 합니다.

이때 성경에서 ‘구름’ 타고 나타난다고 한 대로,
성자는 선생을 통해 <성약 전반기 역사>를 21년 동안 펴면서
이미 ‘청중 구름’ 을 만들어,
그 ‘청중 구름’ 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 ◆ 그리고 <성약역사 전반기>, 곧 <1차 부활기>를 마치고
선생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 ◆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 구원자’ 를
<민족 해방의 때>에 맞춰서 태어나게 하였고,
선생을 미리 준비하고 가르쳐서 ‘청중 구름’ 을 이끌고
<신약역사의 끝>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 ◆ 그 후 1999년부터 <성약 섭리역사>는
민족과 세계의 펍박으로 ‘무덤 기간’ 을 보냈고,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3년 6개월을 ‘네 번’ 거쳤습니다.

아담 후 노아가 나타날 때까지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400년을 ‘네 번’ 거쳤듯이,
섭리역사도 한 때 두 때 반 때를 ‘네 번’ 거치며
선생도, 시대 하와도, 따르는 자들도
더욱 조건을 세우며 ‘성약의 부활’ 을 준비했습니다.

그때가 <성약의 2차 부활기>였습니다.

- ◆ 그 후 <성약 섭리역사>는 영적으로 부활했고,
그때가 ‘2012년’ 이었습니다.

<마야 달력>이 ‘2012년 12월’ 에 끝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때는 ‘지구 종말이 온다.’ 고 예견하기도 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구 종말’ 이 아닌, 구시대 <신약역사>가 끝나고
새 시대 <성약역사>가 신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때에 따라 <성약역사>는 신약에서 완전히 독립하였고,
이때부터 ‘휴거의 비밀, 성자 본체의 비밀’ 이 밝혀지면서
진리와 성령으로 <휴거 역사>를 더욱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에 대해서는 꼭 배워야 된다!)

- ◆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때’ 를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력’ 으로 못 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구원자’ 를 보내시고
<때>에 맞춰서 ‘새 역사’ 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모두 맞게 돌아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 지금까지 <새 역사 성약 섭리역사>는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할 것’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낸 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휴거>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정녕코 <휴거>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야 말았습니다!

◆ 기성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외치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는 그들이 기다리는 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섭리역사는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오셔서

때를 따라 ‘땅의 육신 쓴 자’를 통해

<제림과 휴거의 새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게 핵심 교리!)

◆ 섭리의 새 노래 들려오는데, 어이해 옛 시대에 묶여 사느냐.

못 오실 님이라면 내 마음도 잊으리라.

이별의 운명인가 섭리사에서.

성자가 말씀하신 대로 ‘가사’를 썼습니다. ‘계시’입니다.

<노래>를 ‘교리’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잊어버리니 ‘노래’로 엮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 ◆ 이 노래 외에도 100곡 이상 개사하여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를 보면 ‘옛 시대’를 벗어나
모두 ‘성자와 시대 구원자’에게 맞춰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섭리 전반기에는
‘세상 곡’에 ‘시대 가사’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 ◆ 이제 <완전한 새 역사의 때>입니다.

그것도 <휴거 때>입니다.

이제는 ‘곡’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곡>에 ‘선생이 붙인 가사’를 넣어서 부르면 됩니다.

<가사>는 ‘시대 섭리사에 해당되는 생명의 가사’입니다.

그러나 ‘전세살이’ 이런 가사는
지금 이때에 안 맞으니 바꾸면 되고,
지금 이때에 안 맞는 가사는 지금에 해당되게 좋게 바꾸면 됩니다.

- ◆ <선생이 지은 가사>는 앞으로 성약 100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사’에 ‘새로운 곡’을 꼭 붙여서 부르기 바랍니다.

-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조은 목사에게 말해서
조은 목사가 그동안 앞장서서 했습니다.

벌써 100여 곡 가까이 ‘선생이 지은 가사’에 맞춰서 새롭게 ‘곡’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곡’을 바꿔서 부르니까 그것은 선생 의향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은 선생도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요.

특히 <부활, 휴거, 말씀 심판> 등을 노래로 만들면 시대 말씀과 핵심 교리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핵심 교리는 모두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야 됩니다.

◆ 모두 <선생이 지은 가사>를 가지고

‘새롭게 곡’을 붙여서 계속 부르기 바랍니다.

올해 가을쯤에 ‘작곡 대회, 노래 대회’를 할 것입니다.

선생도 계속 작곡해 보겠습니다.

◆ <선생이 쓴 가사>에 ‘새로운 곡’만 쓰지 말고,
<주를 증거하고 시대를 증거하는 가사의 창작곡>도 많이 지어서 부르기 바랍니다.

이런 곡은 선생이 가사를 못 씁니다.

주께 고백하고 주를 증거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미 <창작곡>도 많이 지어서 부르고 있지요? 계속해야 됩니다.

◆ 찬양과 말씀, 각종 시대 예술로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기입니다.

◆ <시대 말씀>도 계속 증거하며 외치고,
<노래>도 이 시대와 주를 증거하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세상 방송국처럼 섭리사에도 ‘방송국’을 만들어서
계속 ‘삼위 앞에 드리는 예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먼저 ‘쇼케이스’나 ‘다양한 노래와 춤’으로
계속 영광 돌리며, 그 영상을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섭리 방송국>을 통하여 계속 예술을 해야 됩니다.

<섭리의 예술 방송을 운영할 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맡아서 하면 됩니다.

뽑을 테니, 지원하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 오늘은 ‘때’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오면 ‘징조’를 보이시며,
‘표 나는 일’을 행하십니다.

◆ <거짓된 증거>는 다 끌어다가 끼워 맞추기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영계에 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별판입니다.

심판받을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100개 중의 하나만 틀려도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다 틀린 것을 용납하는 ‘그들의 육신’을
<자신의 육>으로 삼고 행하시겠습니까?

틀린 만큼 ‘사탄의 몸’이 됩니다.

- ◆ 모두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주를 위해, 자신을 위해, 자기 영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휴거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 ◆ <때>에 따라 정확하게 정녕코 행하시는 ‘삼위일체’를 깨닫고,
<때>에 따라 와서 <때>에 맞춰 행하는 ‘시대 구원자’를 깨닫고,
<때>에 따라 진행되고
<때>가 되면 여지없이 끝나는 ‘휴거’를 깨닫고,
<때>를 놓치지 말고 <때>에 따라 행함으로
이 시대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